

「2016 함께하는, 학교건축」
한국교육시설학회 제7회 교육시설 디자인 공모전 심사평 총평
 The Whole Process of the 7th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정 주 성 / 전남대 교수
 Jeong, Joo-Seong /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sjeong@jnu.ac.kr

금번 제시된 “2016 함께하는, 학교건축”이라는 주제는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서 수학 중인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미래의 가치를 여는 학교시설 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생과 주민이 지역의 거점인 학교를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 환경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학교건축 만들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소주제를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였다. 첫째 학교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생활을 대응하는 점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정보화시대에 차세대 교육환경의 화두인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학교의 역할도 요구된다. 셋째 앞으로 필요한 융복합 지식의 환경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장으로써의 학교도 그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장으로써 학교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한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취득해야 하는 곳도 학교이다.

이러한 주제는 학생과 주민의 지역거점으로써의 학교, 창의력을 키우는 스마트 교육환경으로써의 학교, 융복합 교육을 위한 학교, 일상생활의 장으로써의 학교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학교의 물리적 공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공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중시

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괴리된 학교시설의 역할 변화를 통해 기존의 학교공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물리적 대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출해 가는지,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관계를 어떻게 제시 하는가 등이 심사의 중요한 판단 준거가 되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기존의 공모전에서 제시된 내용의 답습이나 기성작가들의 모방 등 기술적인 완성도 보다 학교공간의 미래상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시 하는가 등이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93개 작품 중 1차 심사에서 30여 작품을 선정하였고, 2차 심사를 거쳐 20개 작품, 3차 심사를 통해 10개의 작품을 선정한 후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금번 제7회 공모전을 통해 전반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해체하고자 하는 변화의 관점을 담아내려는 다양한 접근시각을 지닌 작품을 평가할 수 있었고, 특히 <지역시설로서의 학교>에 대한 의미를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이번 공모전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다만 학습활동과 생활 활동에 바탕을 둔 학교공간의 심도 깊은 물리적 대안제시에 이르지 못한 점은 학교공간의 본질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실감하였다.

대상(교육부장관상_

MULTICULTURAL SCHOOL ZONE)

대상에 선정된 ‘MULTICULTURAL SCHOOL ZONE’은 지역과 교류하는 세가지 ZONE 조성을 통한 초등학교 복합화 계획안으로 학교 주변시설 및 동선에 따른 문화, 교육, 휴식 3가지 테마 ZONE으로 구분하여 외부인, 학생,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주변 가로망의 해석을 토대로 지역시설의 다양한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학교공간의 미래상을 상대적으로 잘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최우수상(한국교육시설학회장상_마을을 살리는 학교)

정체성을 잃은 마을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도구로 폐쇄된 근대건축물인 연초제조창과 학교공간을 연결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계획안으로 학교공간과 문화공간, 지역커뮤니티공간이 하나의 장소에 공존하는 학교건축 복합화를 제안하고 있다.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해석이 돋보이고, 학교건축을 중심으로 연계이용을 고려한 건축적 제안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학교시설이 마을재생의 도구이기 이전에 학생들의 생활, 학습활동을 위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아쉬움이 남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우수상(대한건축학회장상_애슬나무초등학교)

전형적인 도심형 초등학교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제한하는 계획안으로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일반교실의 수를 줄이고, 다양한 교과활동 및 특별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방과후(After School) 학교공간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명확하게 구분된 School Zone과 연계이용이 가능한 특화공간을 구축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초등학교의 탈피를 제안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생활 활동 공간의 진부한 대안계획은 보다 개선할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평가되었다.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_학교의 평행세계)

획일화된 기존의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학년구분, 교실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는 Free style 학교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형식화된 기존의 학제를 벗어나 무학년제 학교를 지향하는 비형식적 학교공간의 물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학년별 학습 및 생활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학교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작품이다.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_재동초등학교의 새로운이야기)

지역과 단절된 학교공간을 재편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스쿨을 제안한 계획안으로 근대교육의 발생지인 재동초등학교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한 작품으로 이해된다. 기존 학교공간의 활용을 토대로 증축을 통한 구도심형 학교공간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공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